

최고의 사랑 최고의 복음
- 복음으로 여는 룯기 -
룯기 1:8-18, 고린도전서 13:4-8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6가지, 12가지 속에 있는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 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까지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 메시지 붙잡고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이 성취된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성경적 전도운동에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치유를 받으며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세계복음화의 흐름에 대하여 말씀하겠다. 3.9.3기도가 무엇이나?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 3은 성삼위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5력(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안에 다 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5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9는 보좌의 축복 9셋팅을 말한다. 첫 번째가 3생명(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 3초월 보좌의 축복, 어디를 가든지 보좌화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는 것. 시공간의 초월하는 응답을 받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함께 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또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다. 237빛의 역사를 가지고 전 세계 땅 끝까지 237까지 복음화 하는 것이다. 3전무후무는 나와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는 것이다. 3시대는 목회자시대 70제자, 중직자시대 70현장, 부교역자, 렘넌트시대 70나라까지 살려야 한다. 플랫폼과 파수망, 안테나가 되어야 한다. 교회 모든 곳에 안테나가 되어야 한다. 모든 분야를 살리는 플랫폼의 역할, 각 분야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백 년, 천 년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파수망. 준비하고 대비한다는 뜻이다. 너무나도 많은 사탄, 적들이 있다. 깨어있지 않으면 흑암세력을 이길 수 없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한다. 영적인 소통. 가장 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제일 먼저 기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해야 한다. 집중하면 미래가 보인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고 지금 있는 문제는 허상이다. 미래가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 말씀, 기도, 집중해야 한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자녀의 문제, 직장 일도 마찬가지다. 혼자 하고 있으면 고민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가 된다. 안되도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따라온다. 내가 인생을 계획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주신다.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강단을 통해 응답을 받으셔야 한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 순종, 복종하고 나의 수준, 표준,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 능력으로 기준이 되면 승리할 수 없다.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 남편의 이름은 엘

리멜렉이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말론과 길론이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다.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엘리멜렉이 반대의 사람이다.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았다. 나오미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이다. 말론은 '병약한', 길론은 '낭비'라는 뜻이다. 엘리멜렉은 낭비 때문에 집을 떠났다고 생각한다.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의 가치가 중요하다. 흉년으로 인해 모압 땅으로 이주하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 남편 엘리멜렉은 사망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방 땅인 모압에서 모압여인들과 결혼한 두 아들도 사망하고 말았다. 룯기는 사사시대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복음과 사랑과 은혜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이란, 어떠한 이야기 형식을 통하여 메시지와 전달하고자하는 교훈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과 복음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야기 즉 스토리는 전혀 없고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해야 할 행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사랑이란 개념 정리를 해주고 있다. 교훈적인 내용을 정리한 내용도 도움이 된다. 어려운 강의 속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룯기에 등장한 세 사람이다. 그들은 복음과 사랑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룯기 나오미에게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았다. 희생을 하면서 사랑을 해줬다. 그 인물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룯기는 짧은 4장으로 되어 있지만 특히, 세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복음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사실적인 성경 말씀이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랑과 복음적인 행위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악하고 불신앙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체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현장에서 사탄에게 다 빼앗기는 것이다.

1. 큰 첫 번째에서는 룯기에 등장한 세 인물들의 복음적인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첫 번째 인물은 나오미이다.

①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까지 잃어버린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두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자 했던 것이다. 두 며느리들의 미래를 걱정한 것이다. 나오미는 진정으로 복음적인 중심을 가진 믿음의 여인이었다. 룯기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9절의 내용은 두 며느리들이 새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내용이다. 나오미는 최고의 믿음, 최고의 사랑을 가진 완전복음의 제자였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이다. 많은 분이 있다.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들이 닫힌 것이다.

② 또한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룯을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하였고 보아스와 인연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오미는 룯을 며느리가 아니고 자신의 딸과 같이 생각하였다. 나오미의 이러한 최고의 사랑을 통하여 보아스와 룯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이 되었던 것이다. 룯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이다. '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2) 두 번째 인물은 며느리 룻이다.

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이 죽었으니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지만 끝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다. 룻은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② 뿐만 아니라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나오미가 믿고 있던 복음의 가치를 이해한 예비된 사명자였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실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던 것은 단지 인간적으로 착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기생 라합처럼 영적인 축복을 눈치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구나'라고 받아들였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복음을 전해 흑암 꺾인 곳을 밝혀줘야 한다. 큰 불이 아니면 촛불의 역할이라도 해라. 말씀의 기준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작은 진리를 보고도 금방 깨달았다. 복음과 은혜가 넘친다.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이 보인다.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그 믿음을 현장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결국, 룻은 세계복음화와 그리스도의 조상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3) 세 번째 인물은 보아스이다.

① 보아스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 할 줄 아는 부자였다. 자신들의 종들에게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일부러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 주라고 부탁하였다.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②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 신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룻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무를 자가 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배운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③ 질서를 지키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룻기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이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며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무르려면 무르려니와 만일 내가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무를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르리라 하는지라' 기업 무르는 것을 포기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질서와 순서를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

2. 큰 두 번째에서는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 주신 복음과 그리스도와 전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겠다.

(1) 먹고사는 것 때문에 언약의 땅 베들레헬을 떠난 엘리멜렉이다. 결국 모압 땅에서 자신도 두 아들도 사망하고 말았다. 엘리멜렉은 먹고 사는 중심이었지 언약 중심이 아니었다.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나중심, 세상중심, 육신중심의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중심, 복음중심, 전도중심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겠다. 그래야지 승리하는 것이다.

(2) 반면,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과 언약을 선택한 나오미이다. 똑같은 상황, 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헬 땅으로 돌아왔다. 복음, 전도, 언약 따라가면 성공이다.

(3) 룻처럼 불신자 중에 숨겨진 제자가 있다는 것이다.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 70현장의 문을 열어가는 제자 되시길 바란다. 각 분야에서 모든 것들을 복음화 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4) 룻기서의 모든 사건의 중심무대는 수백 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유대 땅 베들레헬이었다. 이것은 완전사랑과 구원을 성취시켜 주실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해야 할 이것이 룻기서의 핵심주제요 절대목표이다.

(5) 룻기서에 나오는 세 인물의 모습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음과 사랑을 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세 사람을 닮아가야 할 것이다.

오늘도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다.

1. Covenant 커버넌트 언약이다. 우리들이 불잡을 절대언약은 겨우 구원을 받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완전사랑 완전복음을 향해 도전하는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나 5천 종족 중에서 룻과 같은 예비된 제자를 찾는 것이다. 달란트를 가지고 전 세계를 보고 기도해야 한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

3. Dream 드림 꿈이다. 우리들이 만약 나오미, 룻, 보아스와 같은 제자가 되기 위해 24시간 마음만 먹어도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생각하다 보면 길이 나온다. 아닌 것은 빼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조금만 집중해도 응답과 해답을 받게 될 것이다. 올 때까지 집중해야 한다. 24 생각하고 집중해야 한다.

5. Practice 프랙티스 실천이다. 이번 주 한 주간에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처럼 나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내용을 적어보시기 바란다. 조금만 실천해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시스템을 세우기 위해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복음체질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뚫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함께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환경과 주권 속에서도 절대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과 길을 보게 하시며 하늘보좌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현장마다 하늘보좌의 능력이 임하며 보좌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목적과 나의 욕심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생명 건 도전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